

3/25/18

설교 제목: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로마서 13:11-14

(롬 13:11)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롬 13: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롬 13: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롬 13: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본문은 참회록을 쓴 성 어거스틴으로 인해 많이 알려진 구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철학에 심취하여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던 마니교에 매력을 느꼈고 그리하여 마니교도로 10 여년간 살다가 마니교 지도자들의 지적인 수준이 높지 않음을 알고 회의를 느껴 신플라톤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열 일곱 살에 동거 생활을 시작하여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방황을 거듭하던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물론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젖은 기도를 빼 놓을 수 없겠지만 직접적으로는 본문, 로마서 13 장 13 절-14 절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였다고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것을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훼방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전히 밤과 어둠 속에서 살게 그리하여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미혹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 말합니다.

1. 성도는 시기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롬 13:11)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로마 시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 낮이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한 밤 중이었습니다.

로마는 경제 정치 국방 등등 모든 면에서 강대국이었고 그러기에 국민들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며 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참으로 풍요롭고 평화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은 한 낮이 아니고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합니다.

역사상 지금처럼 풍요로운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지금을 낮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적으로 캄캄한 밤입니다.

이제 곧 새벽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 24:3)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 24: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 24: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 24: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 24: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 (마 24:8)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 24:9)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 24:10)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 24: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 24: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 24: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 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견주어 볼 때 지금 우리가 어느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때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1990 년 이후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100 명이 넘는답니다.

지금 세상은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둘째, 그때에는 난리와 전쟁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도처에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25 억의 인구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는 지진과 쓰나미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과 쓰나미가 원전과 연계되면 일본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이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언제 아마겟돈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뇌관입니다.

셋째, 그때에는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역사상 요즈음 같이 혼탁하고 냉랭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서 개인 주의가 팽배합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내 말이 곧 진리이고 내가 곧 신입니다.

서로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넷째, 그때에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여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히 마지막 때의 징조를 가늠할 수 있는 표적인데 기독교 세계 성서 공회 연합회가 발표한 '2016 세계 성서 번역 현황 보고서(Global Scripture Access Report 2016)'에 따르면 전 세계 6,880 개의 언어 중에 성경 전서는 648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으며, 신약은 1,432 개, 단편(쪽복음)은 1,145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소한 단편(쪽복음)이라도 번역된 언어의 수가 총 3,225 개에 이른 것입니다.

컴퓨터의 발달로 번역 속도는 날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번역되어 전해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다섯 째, 그때에는 멸망의 가증한 것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장 거룩한 곳인 성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게 제사를 바치라'고 하는 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한 날과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그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은 영적으로 캄캄한 밤이고, 밤이 깊었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와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재림이 훨씬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라는 말은 종말을 준비하고 있을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 24:42)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 24:43)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마 24:44)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잠들어 있을 때 도적이 오면 도적질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도적이 오는 것을 알고 지킬 수 있습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부탁했으나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 26:41)”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성도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롬 13: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롬 13: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입니다.

단정히 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두울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무장하여 악의 어두운 세력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것은 지금이 낮이 아니고 밤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이 밤일지라도 성도들은 실제로 낮인 것처럼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색잡기는 폐가망신을 가져옵니다.

성도는 음란이나 호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란이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으로 탈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즈음 세상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 과거에 성희롱, 성추행했던 사건들이 밝혀져 망가지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도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기’는 욕심이 불러 일으키는 감정이며 이것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 ‘다툼’입니다.

성경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 난 것이 아니냐"(약 4:1)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나에게 두면 다툼과 시기를 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두는 사람은 절대 다툼과 시기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일들을 벗어 버리려면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행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지 내 힘으로는 안됩니다.

성경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롬 13: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을 입는 데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몸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사람을 아름답게 돋보이게 하는데 있습니다.

좋은 옷은 이러한 목적을 잘 충족시켜주는 옷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감을 썼더라도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지 못한다면 좋은 옷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보기는 좋은데 보온이 안된다면 좋은 옷이 못됩니다.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 또한 좋은 옷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위에서 말한 세 가지 목적이 다 충족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줍니다.

영적인 수치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가릴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수치를 가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하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셔서 수치를 가려주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신자를 보호해 주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신자를 보호해 줍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이 벌로 그를 살던 땅에서 쫓아내면서 두려워하는 그를 외부로부터 보호해 주려고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신자의 아름다움을 가꾸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더럽고 추한 나는 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추진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상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결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엡 6:10)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엡 6: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엡 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엡 6: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엡 6: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엡 6: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엡 6: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엡 6: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에는 언제나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세상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318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외면합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는 말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그 날을 외면하려고 해도 그 날은 반드시 우리 앞에 닥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세상 마지막 날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낮과 같이 단정히 말씀대로 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